

‘韓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 글로벌 선단형 수출길 개척

SK(주) C&C-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한국형 디지털 혁신 서비스 확보
우선 개발대상 플랫폼·솔루션 선정

SK(주) C&C가 ‘한국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구글과 함께 산업별 디지털 혁신 플랫폼 및 솔루션을 국내외 확산하기 위해서다.

SK(주) C&C는 자사의 통합 디지털 플랫폼 ‘멀티버스’가 구글 클라우드와 결합해 국내 디지털 대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의 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멀티버스 기반의 산업별 버티컬 플랫폼·솔루션 공동 개발 및 국내외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할 계획이다. SK(주) C&C의 멀티버스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주요 플랫폼과 솔루션을 집대성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이다.

양사는 우선 ‘멀티버스 플랫폼 X 구글’ 모토 아래 개방형 디지털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국내외 주요 산업별 기업·고객·기관·스타트업·IT기업과 협력해 플랫폼 기반의 한국형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확보하고, 확보된 서비스의 SaaS 상품화를 통해 글로벌 선단형 수출길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SK(주) C&C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한국형 디지털 플레



SK(주) C&C 이기열 디지털플랫폼총괄(왼쪽)과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최기영 대표가 SK(주) C&C ‘멀티버스’ 기반의 산업별 버티컬 플랫폼·솔루션 공동 개발 및 국내외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미팅’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SK(주) C&C

그십 사업 공통 랩을 구축하고 양사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을 진행한다.

또한 산업별 주요 멀티버스 플랫폼 이용 고객을 분석하며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해 우선 개발 대상 플랫폼 및 솔루션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예측·탐지·추천을 주제로 개발된 ▲유통 분야의 고객 분석 및 스마트 가격 ▲금융 분야의 마켓 센싱 ▲헬스케어 분야 신약 개발 플랫폼 및 의료 AI ▲금융 불안전 판매 예방을 위한 세일즈 품질 보증 ▲보험심사 어드바이저 등이다.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비전, 이상진동 감지 솔루션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고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입

증된 스마트 팩토리 요소 솔루션들을 검토한다.

양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개발생성 도구, 하이브리드 운영 도구 등의 기술 요소를 SK(주) C&C의 멀티버스 플랫폼에 적용해 산업별 데이터 기반 AI·블록체인 적용 모델 확산에 협력한다.

SK(주) C&C 이기열 디지털플랫폼총괄은 “멀티버스 플랫폼에 기반한 국내 주요 고객들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물론 국내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및 솔루션 수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넷마블, ‘쿠팡 팩토리’ 최대 지분 인수

넷마블은 미국 인디게임 개발사 ‘쿠팡 팩토리’ 최대 지분을 인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수 주체는 넷마블 북미법인으로 쿠팡 팩토리는 넷마블 북미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쿠팡 팩토리는 지난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설립된 인디 게임 개발사로, 모바일 게임 ‘WWE 챔피언스(WWE Champions)’ 등을 개발한 바 있다. 현재 NBA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넷마블 북미법인의 첫 자체 퍼블리싱 게임 ‘NBA 볼스타즈(NBA Ball

Stars)’를 개발 중이다.

넷마블은 앞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NBA 볼스타즈’가 올 1분기 글로벌 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 심철민 북미법인장은 “이번 인수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로 북미에서 넷마블의 퍼블리싱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쿠팡 팩토리 설립자이자 CEO인 리치루카비나는 “NBA 볼스타즈를 시작으로 앞으로 양사가 다양한 게임 개발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KT, 기가 와이 인터넷 가입자 20만명 돌파

출시 8개월 만에 이뤄

KT는 ‘기가 와이 인터넷(GiGA Wi 인터넷)’ 가입자가 출시한지 8개월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가 와이 인터넷은 지난해 6월 KT가 통신 업계 최초로 선보인 신개념 와이파이(WiFi) 서비스다. 기존 유선 와이파이 공유기에 이동형 와이파이 공유기인 ‘기가 와이파이 버디(GiGA WiFi Buddy)’가 추가됐다. 이용자가 집안 어디서나 끊김 없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변경할 수 있다.



모델들이 KT의 기가 와이 인터넷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지난 1월 기준 KT 인터넷 신규 고객 중 68%가 ‘기가 와이파이 홈’ 서비스를 가입했으며 그 중 36%가 기가 와이 인터넷을 선택했다. /김나인 기자

SKT, ICT 인프라센터에 녹색전기 흐른다

분당·성수 ICT 인프라센터 활용
한전과 연 44.6GWh 분량 계약
‘녹색 프리미엄’ 적용 대상 확대

SK텔레콤의 분당·성수 ICT 인프라센터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녹색 전기’가 흐르게 된다. SK텔레콤은 한국전력공사와 연간 44.6GWh 분량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인증에 관한 ‘녹색 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T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공받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약 1만600여 가구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한다. SKT는 확보된 전력을 분당·성수 ICT 인프라센터에서 활용하고, 추후 ‘녹색프리미엄’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태양광·풍



재생에너지 사용인증 이미지. /SK텔레콤

력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한국전력에 추가 요금(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 없는 측면을 보완하고, 관련 수익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은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 친환경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하고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올해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다.

‘RE100’은 오는 2050년 이전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SKT는 지난해 11월 SK, SK하이닉스 등 그룹 내 관계사들과 함께 ‘RE100’ 가입을 국내 최초로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통해 ‘RE100’ 이행을 본격화했다.

SKT는 자사가 보유한 ICT 역량을 동원해 에너지 효율 제고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가속화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코너스톤 ‘포스웨이 나인그리드’ 8년 연속 리더

학습관리시스템 부문

코너스톤 온디맨드가 ‘2021 포스웨이 나인그리드’의 학습관리시스템 부문에서 전략적 리더 포지션에 선정되며 8년 연속 리더 포지션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스웨이그룹 데이빗 윌슨 CEO는 “코너스톤은 학습관리 부문에서 지속적인 투자, 혁신 및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코너스톤은 2020년 사바를 인수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보다 견고한 입지를 확보했으며 혁신에 크게 투자하여 제품 로드맵을 가속화,

가장 크고 복잡한 기업의 변화하는 요구 사항까지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웨이 나인그리드는 주로 영국 및 유럽 시장에서 학습관리시스템 부문 솔루션과 업체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면 모델이다. 솔루션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성능, 잠재력, 시장 입지, 총소유비용(TCO), 그리고 시장 전반에 걸친 향후 전망 등이다. /구서윤 기자

렉서스, 봄맞이 에어컨 무상 점검 서비스

렉서스가 봄 맞이 무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렉서스코리아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21 세이프 스프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봄맞이 서비스 캠페인으로, 방문 고객에 에어컨 무상 점검과 살균 소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에어컨 필터 ▲엔진 에어 클리너 ▲엔진 플러싱 ▲유상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부품 가격 및 공임비용에 대

하여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0만 원 이상의 유상 정비 고객에게는 전면 와이퍼 러버 무상 교환 서비스를, 50만 원 이상의 유상 정비 고객에게는 렉서스의 복합문화공간인 커넥트투에서 판매 중인 영퍼머스 바리스타의 시그니처 콜드브루 커피를 추가로 증정한다.

아울러 오는 3월 16일 ‘New LS’ 출시를 기념하여 LS를 보유한 고객들이 엔진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손 세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쌍쌍, 올해 지역 진출 100곳 더 늘린다

서울 비롯 지방 6대 광역시 진출

공유 키보드를 운영하는 쌍쌍이 현지 운영사업자를 통한 활발한 서비스 진출에 힘입어 올해 100곳 이상의 지역에 추가 진출한다.

쌍쌍의 운영사 피우엠피는 전국 40개 현지 운영사업자와의 지역 진출 계약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쌍쌍은 서울을 포함해 지방 6대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에 모두 진출한 유일한 전국 단위 공유 키보드 서비스가 됐다.

쌍쌍은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운영사업에 나섰다. 최근까지 500명이 넘는 쌍쌍 지역사업 희망자가 몰렸으며, 이중 면밀한 상권 분석과 사업자 면담을 통해 40개 지역을 성공적으

로 오픈했다. 쌍쌍은 속도를 더해 연내 100개 지역에 추가 진출할 계획이다.

쌍쌍의 지역운영사업은 특정 지역을 본사가 직접 뛰어들지 않고, 해당 지역에 이해도 높은 현지 사업자를 엄선해 진출한다.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운영사업자는 쌍쌍에서 기기와 플랫폼, 운영 시스템 및 노하우를 받아 해당 지역 사업권을 갖는다.

지역운영사업자는 키보드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초기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쌍쌍 관계자는 “같은 투자금으로 쌍쌍의 ‘임대 모델’은 ‘구매 모델’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유키보드를 운영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